

논문접수일 : 2014.06.19

심사일 : 2014.07.04

게재확정일 : 2014.07.29

포스트페미니즘 시대의 여성상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 한국과 미국의 동시개봉 영화포스터를 중심으로 -

Semiotics Study of Female Image of the era of Postfeminism

- Simultaneous Movie Poster in Korea and the U.S. -

윤 혜 진

우송대학교 디지털미디어대학 미디어디자인학과 교수

Yoon hye-jean

Woosong university, Dept. of Mediadesign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연구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고찰

- 2.1. 페미니즘
- 2.2. 롤랑바르트의 기호학
- 2.3.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

3. 영화포스터 속 여성상의 기호학적 분석

- 3.1. 1960년대~1980년대 한국 영화포스터
- 3.2. 롤랑바르트의 기호학적 분석
- 3.3.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페미니즘으로 시작된 여성 해방 이데올로기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오늘날 페미니즘의 종언이라는 포스트페미니즘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 시대의 대중적 정서를 반영하는 대중매체에서도 그러하는데, 과거 몇 년 전 몇 개의 역할에 규정되었던 영화 속 여성의 역할은 이제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이미지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가부장제’와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과 억압’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고찰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포스트페미니즘 시대에 한국과 미국의 영화포스터에서 여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함의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영화포스터에 담긴 여성의 기호를 비판적 시각으로 평가하여 시대의 여성상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1990년대 후반 한국과 미국에서 제작하고 동시 상영한 여성주연의 영화 2편의 포스터 4점을 선정하고, 롤랑바르트의 기호학으로 기표와 기의, 신화를 분석하고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으로 한국과 미국 포스터의 여성상에 이항대립구조와 상관관계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같은 내용의 영화라 할지라도 한국과 미국포스터의 기표와 기의는 정반대의 대립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가부장제 체제는 포스트페미니즘 시대에도 뿌리 깊게 잔존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개인주의 의식이 깊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포스트페미니즘, 여성상, 기호학

Abstract

While changes in various forms, ideology of liberation of women was launched in feminism has led to the era of post-feminism that end of feminism today. This phenomenon is reflected in the age of mass media, popular sentiment making drawn in the past few years several regulatory roles, women's roles was in the movie, regardless of genre and now being expanded into a variety of images. But in Korea in society 'patriarchal system' and 'female' that exists between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has been completely resolved for a discussion of this study still needs to be pointed out as being the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started in the late 1990s, post-feminist era, women in Korea and the U.S. How would you describe the movie poster and to study the implications and make it objective. In particular, the movie poster criticism contained in the evaluation of women with signs of the times is done so that the women of appreciation for the study. Method of study in Korea and the U.S. in the late 1990s production and the simultaneous screening of two films starring women lead movie poster convenience to select four piece, and analysis of vessel and registration table, the mythology in the semiotics of Roland Barthes, were analyzed qualitativel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ichotomous structure of the female image posters of South Korea and the U.S. in the semiotics of Greimas square basis. As a result, even in the film, such a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the opposite of a poster of the signifier and the opposition groups to form the structure was patriarchal system in Korea is deeply rooted in the post-feminist era, while remaining in the United States is based on liberal individualism notice that consciousness was reflected in the depth.

Keyword

Postfeminism, Female Image, Semiotics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미국의 페미니즘(feminism)은 19세기 자유주의 여성운동을 바탕으로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과 맥을 같이 하면서 대중의 시각으로 사회, 경제적 입장에서 여성의 권리와 남녀평등주의에 입각한 페미니즘이 전개되었다(Alter, 1985). 한국은 1990년대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늘고 지위가 상승하면서 본격적인 페미니즘이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며, IMF이후 포스트페미니즘(postfeminism)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대중매체를 통해 가부장제라는 범주 안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전개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페미니즘은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진적으로 포스트페미니즘시대로 접어들면서 양성평등의 모순적인 면이 지적되고 현재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 포스트페미니즘시대의 한국에서 사회적 역할이 급변한 여성의 모습을 영화 포스터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함의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며, 한국과 미국의 포스터를 비교하여 두 나라간의 여성상에 대한 의미적 차이점을 페미니즘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방법은 1차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페미니즘의 개념을 정리하고 분석도구인 기호학의 이론을 살펴보고자 현대 기호학의 대표 연구자인 롤랑바르트(Roland Barthes)의 신화이론과 그레마스(A.J.Greimas)의 기호학적 사각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2차로 19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제작된 영화중 여성상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위하여 로맨스, 에로티즘 장르의 영화를 제외하고 여성이 주인공이며 한국과 미국에서 제작 및 동시 상영한 영화 두 편의 포스터 4점을 선정하였다. 이를 같은 영화라도 나라별로 여성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롤랑바르트의 기호학으로 인물과 배경, 오브제, 텍스트, 칼라의 기표와 기의, 신화를 분석하고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으로 한국과 미국 포스터에 신화된 여성상의 이항대립구조와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페미니즘

페미니즘은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시각 때문에 여성이 억압받는 현실에 저항하는 여성해방이

데올로기를 말한다(Donovan, 1999). 또한 페미니즘은 여성이 ‘타자’로 존재하는 사회적인 성차별과 억압 속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남성과의 차이를 평등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논점이다.

페미니즘은 크게 근대 페미니즘과 현대 페미니즘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적¹⁾ 페미니즘으로 대별되고, 후자는 자유주의적, 급진적²⁾, 마르크스주의적³⁾,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으로 분류된다. 근대의 페미니즘이 여성의 법적,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였다면 현대의 페미니즘의 목표는 단순히 여성의 ‘정치적 해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 자체의 해방’에 있다고 설파하였다. 즉 근본적인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여성해방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포스트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정체성 확립이 정치적 운동의 필요성 때문에 제기된 것으로서 오히려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억압하고 여성의 가능성을 가두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들은 모더니즘의 이분법이 여성을 타자의 입장으로 놓았다고 비판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방법론을 도입하여 여성 본연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한 정체성을 강조하였다(이동수, 2004).

포스트페미니즘은 ‘포스트(post)’와 ‘페미니즘(feminism)’ 사이에 하이픈을 넣은 것으로 현대 여성들이 이제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페미니즘은 불필요하다는 ‘페미니즘 시대의 종언’, ‘반 페미니즘’ 등 페미니즘의 적대를 표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Brooks, 1995). 하지만 소피아 포카(Sopia Phoca, 2001)는 포스트페미니즘이 페미니즘의 주체인 ‘여성’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변화가 생겼음을 나타내는 조어일 뿐 페미니즘의 목적과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게 견지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국에서 페미니즘은 전통적인 가부장제라는 오랜

1)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은 여성의 억압에 대해 분석하는데, 모든 형태의 사회적 억압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계급과 성뿐만 아니라 인종, 민족성, 연령, 성적 선호도, 전 세계적 인종 간의 위계질서 내에서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억압의 체계를 탐구한다. (고영복, 사상사 개설, 1996)

2) 급진적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에 기초한 법적·정치적 구조와 사회·문화적 제도가 여성 억압의 한 원인일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性)이 여성의 정체감과 억압의 주된 원인이므로, 여성해방은 출산·양육 등의 여성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여성운동 또는 그 이론을 가리킨다. (<http://www.doopedia.co.kr>)

3)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1970년대 이후 여성이 가부장제와 자본제의 양방에서 2중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사태를 ‘재생산 노동’이라는 개념에 의해 폭로하고, 성별 역할 분담 이데올로기의 해체를 목표로 한다. (고영복, 사상사 개설, 1996)

체제 속에 설정된 여성의 역할에서 벗어나 남녀평등으로 자립하고자 하는데서 시작되었으며 1960년대 부터 1970년대에 급진전된 경제개발과 핵가족이라는 가족 형태의 변화는 여성이 남성에게 경제 예속되는 이른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가 나타났다. 이후 1980년대에 서구사회의 개방과 활발해진 국제교류는 노동계층의 일부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시작점이 되었으며 여성단체나 페미니즘의 실천운동도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여성들의 본격적인 사회활동 증가로 실질적인 여성의 지위와 행동양식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함과 동시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여성을 둘러싼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여성이 아닌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면서 Brooks(1997)는 이후를 포스트페미니즘 시대라고 하였다.

2.2. 롤랑바르트의 기호학

기호학은 인간이 삶 속에서 창조되고 의미되는 상징체를 분석하는 학문으로, 그 상징체가 기호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상징체는 사회과학이나 경제, 예술,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인간이 다양하게 표현하는 의미와 현상, 행위 등을 모두 기호로 본다.

현대 기호학은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쉬르(Saussure)로 인해 크게 발전했는데, 소쉬르는 기호를 생각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호 표현과 기호 내용의 결합체로서 자의성을 지닌 것으로 의미소통을 위한 고안물이라고 하였다. 기호는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의 두 요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것으로(Hawkes, 2004), ‘기표’는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실체적 요소로 형식을 말하는 것이고, 기의는 기호가 대변하는 정신적 개념으로 의미 되어지는 내용을 말한다. 이러한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연적이거나 필연적인 동기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관습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기호의 의미는 기표와 기의의 연결 관계 즉 의미작용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박영원, 2003).

롤랑바르트는 소쉬르 기호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방향을 토대로 하여 1차 기호, 즉 객관적인 의미를 갖는 외시 의미(denotation)와 사회, 문화에 따라 주관적, 혹은 상호 주관적인 의미를 갖는 2차 기호의 공시 의미(connotation)를 중심으로 사회학적 현상과 문화적인 의미로써의 기호행위를 신화론(mythologie)이라고 칭하며 의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실행하였다.

바르트는 신화를 이데올로기나 사회적인 가치, 신

념에 대해 하나의 사회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말한 것으로, ‘상호 연결된 공시적 개념의 연쇄’로 생각하였으며 ‘신화는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하며 문화는 신화에 소재를 제공 한다’고 하였다(J. Rey, 1979). 또한 바르트는 ‘합축적 의미란 예술적인 것도 자연적인 것도 아닌 역사적인 것일 뿐이다’라고 하고 합축적 의미가 사람들의 주관적인 가치나 감정, 정서적인 면에 작용하지만 개인의 인식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에서 오리엔테이션된 것에 근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주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Fiske & Hartley, 1979).

바르트는 기호의 의미구조를 [표 1]과 같이 도식화 하였는데 1차 기표와 기의가 합쳐져서 2차 기표와 기의가 되고 이것은 자유로운 자의성의 차원으로 합축적 의미를 가진 신화체계의 기표가 된다. 그리고 신화체계의 기표와 기의는 다시 의미작용이라는 신화기호를 만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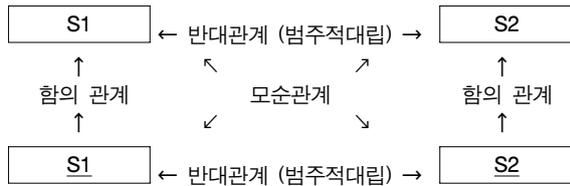
신화 (myth)	Ⅲ.기호(의미작용)	
언어	3.기호(의미) 1.기표(형식)	
	1.기표	2.기의
	Ⅱ.기의 (개념)	

[표 1] 롤랑바르트의 신화체계도

2.3.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

기호사각형(Semiotic Square)은 그레마스가 오랜 세월을 거쳐 완성한 모델로 프라하 학파의 음운 이론과 레비시트르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 모델을 만들었다. 기호 사각형은 하나의 의미 실질 혹은 의미범주가 분절된 양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어떤 의미 실질이든, 어떤 의미 범주든 이 기호 사각형을 통해 분절되고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박인철, 2003). 즉 개체가 가진 의미 작용과 개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체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라 할 수 있으며, 간단한 도식의 대입으로 의미 뿐 아니라 의미의 구조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어 다양한 장르에서 의미 생성 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

[표 2]는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으로, 4개의 축들은 반대 관계(S1과 S2)와 모순 관계(S1과 S2), 그리고 하위 반대 관계(S1과 S2)의 대립구조와 함의 관계(S1과 S1)의 합축적인 대립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의미의 심층구조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설득력을 갖는다.



[표 2]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

기호사각형에 내재된 관계구조는 반대의 대립구조와 모순의 대립구조, 그리고 함축의 대립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호사각형의 장점을 김영도(2008)는 [표 3]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하였다.

기호학적 사각형의 방법론적 장점	
1	소쉬르가 내세운 구조주의 구호인 ‘차이와 대립의 논리’가 아무리 작은 체계라도 존재함을 보여줌.
2	네 개의 항은 관계의 교차점이고 귀결점임을 명시적으로 보여줌.
3	담화 실현의 최소 장소, 즉 하나의 관계망임과 동시에 잠재적인 조작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보여줌.
4	하나의 개념 세계 ‘이 세계가 실사 ‘논리적’ 이지 않다 하더라도 ‘를 일관성 있게 조직할 수 있음을 보여줌.
5	분절된 의미의 소세계를 구성하는 사항들이 주어진 담화 전체를 통해 존재할 때, 서로 동위적 관계로 동질적인 세계를 조직함을 보여줌

[표 3] 기호학적 사각형 도식의 장점

기호사각형의 가치는 의미작용의 기본적인 구조인 이항대립과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를 뛰어 넘으면서 의미생성의 새로운 사고체계를 논리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이다. 즉 이항대립이나 흑백논리 같은 이분법적 사고로 해석자의 의미작용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작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새로운 영역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 있다(백승국, 2004).

3. 영화포스터 속 여성상의 기호학적 분석

3.1. 1960년~1980년대 한국 영화포스터

영화포스터는 비록 흥행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현 시대의 가치관이나 의식을 비춰보는 지표가 된다. 흥행을 위한 마케팅 전략 또한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 사회적으로는 현실의 문제의식, 대중의 심리,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대중이 지향하는 문화현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화포스터는 대중에게 시각적인 인상을 순간적으로 자극시켜 보는 사람의 잠재의식에 의한 반응과 연쇄작용을 일으켜 강한 선전효과와 전달효과를 거두는 기능적인 특징을 지녔으며 당대의 사회풍속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역사의 기록이다(이철영, 백중웅, 2007).

1960년대부터 1980년대의 한국의 여성주연 영화 포스터의 여성들은 사회 속에서 ‘욕망의 대상’으로 기의되거나 남성들의 현실도피를 위한 값싼 선정주의의 ‘성적 도구’로 이용된 여성의 이미지가 대부분이었다. [표 4]는 각 시대의 대표적인 여성영화 포스터 이미지로 여성들의 선정적인 포즈나 동작을 통해 의도적으로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면서, 남성을 방황하게 하는 요인이거나 남성의 일탈의 도구로 의미되었다. 또한 남성의 품에 안겨있거나 남성을 끌어안고 있는 이미지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거나 남성을 유혹하는 ‘팜프파탈’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여성의 지위를 남성에게 예속시킴으로서 성차와 역할이 명확히 분담되고 남성을 위한 섹슈얼리티나 폭력, 억압 등 사회 속에서 타자화 된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영화	포스터 이미지	
1960년대		
	하녀	성춘향
1970년대		
	영자의 전성시대	겨울 여자
1980년대		
	애마 부인	씨받이

[표 4] 1960년대~1980년대의 여성영화 포스터4)

4) 출처 : <http://www.koreafilm.or.kr>

3.2. 롤랑바르트의 기호학적 분석

3.2.1. 한국 영화 ‘친절한 금자씨’

한국영화와 미국영화는 각 나라에서 동일한 내러티브로 상영되고 있지만 포스터는 나라별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로트만 (Y.Lotman, 2008)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른 문화로부터 차용된 것은 결코 기계적으로 병합되는 법이 없으며 그것은 수용자 문화의 영향 아래서 변형되는 바, ‘낮선 것’ 이자 동시에 ‘자신의 것’ 으로 해석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영화포스터는 귀속된 사회, 문화의 관점에 따라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며 새로운 의미로 생산 된다.

박찬욱 감독의 한국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내용은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유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복수를 위해 잔인한 살인을 서슴치 않는 강한 여성상을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남성의 산물로 의미되었던 ‘힘, 독립, 주도, 폭력’ 을 내포하고 있다. [그림 1]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상영된 <친절한 금자씨>의 영화포스터로 두 나라가 전혀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1] 친절한 금자씨의 한국포스터와 미국 포스터⑤

[표 5]는 한국포스터를 롤랑바르트의 신화체계도에 대입하여 분석한 표로, 한국포스터의 신화는 ‘금자는 성녀’ 이다. 화장기 없는 청순한 얼굴, 단정하게 벗어넘긴 앞가르마, 순백 블라우스의 기표는 백의의 민족시대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이며, 그녀의 손에 든 케이크는 탄생을 의미한다. 탄생이라는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생명을 창조하는 신적인 존재로, 마치 성모마리아 상을 연상하게 한다. 핑크의 성역 속에 가두어진 세계, 즉 여성은 사랑과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존재할 때 가장 빛을 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 포스터의 여성상은 모성애가 강한 여성, 또는 인내로 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어머니들처럼 ‘내면의 강인함’ 을 기의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 영화포스터 이미지 속에는 복수나

살인의 연상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몽환적이고 추상적인 상황들로 영화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신화	기호(의미작용)	
	모성을 지닌 ‘성녀’ 를 신화함	
함축의미	기표(형식)	
	인물	1.백의 2.앞가르마 3.화장기 없는 얼굴
	배경	1.핑크의 궁전 2.하늘
	오브제	1.활짝 핀 꽃 2.빨간색 케이크 3.초
	컬러	핑크, 스카이 블루
텍스트	캘리그래피	독특하고 감성적 이미지
외시의미	기표	기의
	청순한 여성	한국의 여성상

[표 5] ‘친절한 금자씨’의 한국포스터 분석

신화	기호(의미작용)	
	비정한 ‘여 전사’ 를 신화함	
함축의미	기표(형식)	
	인물	1.빨간 눈화장 2.기러진 입 3.허공을 향한 눈동자
	배경	무배경
	오브제	블랙 가죽
	컬러	블랙, 레드, 화이트
텍스트	볼드한 고딕체	확고한 신념
외시의미	기표	기의
	양성적 이미지의 여성	성역할 부재

[표 6] ‘친절한 금자씨’의 미국포스터 분석

[표 6]은 미국포스터를 롤랑바르트의 신화체계도에 대입하여 분석한 표로, 미국포스터는 지극히 느와르 (noir)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포스터와는 정반대의 시각적 표현을 보인다. 미국포스터의 기표는 빨간 눈 화장, 가죽 재킷, 허공을 향한 먼 시선, 흑과 백의 칼라를 사용하여 냉혹하고 비정한 모습을 통해 ‘분노와 복수를 향한 여전사’ 의 신화를 의미하고 있다. 즉 ‘외면의 강인함’ 을 기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포스터가 여백과 공간속에 인물외의 다양한 오브젝트를 나열하여 주인공과 사물의 인과관계를 암시하는 반면에, 미국의 포스터는 극단적인 인물 클로즈업을 통해 독립적으로 주인공의 심리상태만 보여주고 있

5) 출처 : <http://www.koreafilm.or.kr>

다. 철학자 질 들뢰즈 (Gilles Deleuze)는 ‘클로즈업은 객체를 모든 시공간적 좌표로부터 추상화하며 객체에 게 하나의 실체로서 지위를 부여한다.’ 고 하였다. 이처럼 클로즈업을 통한 인체의 과다한 확대는 수용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이나 존재감, 암시와 궁금증을 유발함과 동시에 표현대상에 대한 심리적 몰입을 유도한다.

3.2.2. 미국 영화 ‘킬빌’

미국영화 <킬빌>은 쿠엔틴 타란티노가 각본과 감독을 한 영화로 최고의 청부살인 조직요원인 여성이 은퇴하여 평범한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살아가고자 하나, 그녀를 사랑한 보스 ‘빌’ 이 배신감에 그녀의 신랑과 하객은 물론 그녀 뱃속의 아이까지 모두 살해하였고, 분노한 그녀는 잔인한 복수극을 벌이는 내용이다. [그림 2]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상영된 <킬빌>의 영화포스터이다.



[그림 2] 킬빌의 한국포스터와 미국 포스터⁶⁾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2001)는 ‘기호는 우선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과는 이원적인 관계에 있다. 지시물과 기호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최소한의 거리가 있으며, 바로 이 거리는 의미의 거리가 되고 깊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표와 기의의 거리는 대중문화에서 오히려 ‘담화’ 나 ‘상상력’ 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표와 기의의 이중성을 전달하기도 한다. 한국포스터에서 ‘자극할수록 더 강해진다’ 라는 텍스트는 많은 상상력을 자극시키면서, 영화 내용의 복수를 다짐하는 기의와 함께 섹슈얼리티(sexuality)를 상징하는 이중적 기의를 함유하고 있다.

멀비는 프로이트(Sigmund Freud)와 라캉(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영화 텍스트 내에서 그리고 관람하는 행위자체에서 시각적 쾌락이 어떻게 남성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분석

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능동자이며 시선의 주체인 남성이 수동자이며 시선의 대상이 되는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지를 분석하고 있다.(이현정, 2004). [표 7]에서 한국의 킬빌 포스터는 이러한 남성 중심적 시선으로 여성의 신체, 강인한 눈빛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을 통해 복수에 대한 신념보다 저돌적이며 공격적인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보여주고 있다.

신화	기호(의미작용)		
	여성의 공격적 섹슈얼리티를 신화함		
함축 의미	기표(형식)		
	인물	1.반쯤 벌린 입, 얼굴 보다 강조된 육체 2.그을린 피부 3.뒤로 넘긴 칼을 든 팔	1.섹슈얼리티 2.서양 여성의 이미지 3.공격성
	배경	텍스처가 있는 배경	욕망
	오브제	칼날이 보이지 않는 칼	불분명한 복수의 의지
	칼라	레드, 블랙	강렬한 이미지
텍스트	거친 고딕체	아성적 이미지	
외시 의미	기표	기의	
	nud 같은 여성	남성 중심적 시선	

[표 7] ‘킬빌’의 한국포스터 분석

신화	기호(의미작용)		
	목숨을 건 방어 의지를 신화함		
함축 의미	기표(형식)		
	인물	1.웨딩드레스 2.굳게 다문 입 3.목에 위치한 칼	1.가장 아름다운 순간 2.단호한 의지 3.목숨을 건 복수
	배경	옐로우 배경	불안한 심리
	오브제	가로로 잡은 칼	방어
	칼라	옐로우	동양의 무협이미지
텍스트	분절된 고딕체	처절한 복수	
외시 의미	기표	기의	
	웨딩드레스의 신부	여성 중심적 시선	

[표 8] ‘킬빌’의 미국포스터 분석

[표 8]에서 미국포스터는 영화의 내용을 철저히 반영하고 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와 긴 칼은 정 반대의 기표와 기의를 내포하고 있는데, 웨딩드레스는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며 반대로 칼은 가장 불행한 순간을 의미한다. 가장 아름다워야 할 순간에 칼을 든 이미지는 여성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처절하고 단호한 여성 중심적 시선이다. 특히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대결장면은 마치 1970년대의 홍콩 무협영화를 연상하게 되는데, 영화가 과학적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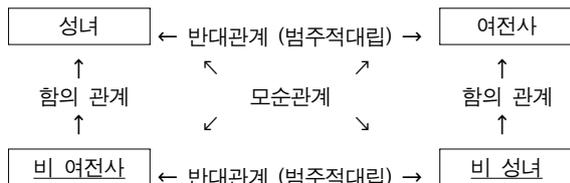
6) 출처 : <http://www.koreafilm.or.kr>

이 아닌 아주 통속적이며 고전적인 방법으로 복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동양의 무협영화 이미지를 통해 상징하고 있으며, 포스터는 이러한 감독의 제작의도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미국 영화포스터에서 영화 속 내용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직설적 표현’은 클로즈업을 통한 ‘극단적인 근접성’과 함께 미국문화의 철저한 개인주의에서 그 영향을 찾을 수 있다. 직설적 표현의 중심에는 외부의 시선이 나 상황보다는 주인공 자신의 심리, 즉 한 개인의 심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3.3.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 분석

3.3.1. 한국 영화 ‘친절한 금자씨’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은 어떠한 대상도 분절을 통하여 의미나 관계를 산출할 수 있는 모델이다. 앞에서 고찰된 한국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신화인 ‘성녀’와 ‘여 전사’를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 내에 분절하면 두 포스터간의 세부적인 의미대립을 이원적인 논리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표 9]는 ‘친절한 금자씨’의 기호를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에 분절하여 대입한 것으로, 성녀와 여 전사는 서로 반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녀를 부정하면 성녀에 대한 모순항인 비 성녀를 얻을 수 있고, 여 전사를 부정하면 여 전사에 대한 모순항인 비 여 전사를 얻을 수 있다. 비 성녀와 비 여 전사는 하위관계에 있다.



[표 9] ‘친절한 금자씨’의 기호학적 사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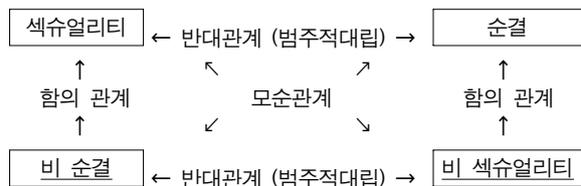
한국과 미국포스터의 기호는 서로 상반되는 시각적 표현과 기의를 함축하고 있어 [표 10]과 같은 이항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포스터는 가부장적 체제를 기반으로 여성의 내시적 의미를 기호화하고 있으며 가족이라는 집단주의와 관계지향성을 강조하고 여성을 환상적, 감성적으로 시각화하고 있다. 반면 미국포스터는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여성의 복수에 대한 외시적 의미를 기호화하고 있으며 영화의 절대적 주체자로서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출하고 현실적으로 시각화하고 있다.

한국 - 미국	
성녀	- 여전사
가부장적	- 개인주의적
내시적	- 외시적
인내적	- 표출적
여성적	- 양성적
집단주의	- 개인주의
분산적	- 몰입적
환상적	- 현실적
원격적	- 근접적
감성적	- 이성적
순종적	- 극단적
관계지향적	- 관계지배적

[표 10] ‘친절한 금자씨’의 한국과 미국 이항대립 쌍

3.3.2. 미국 영화 ‘킬빌’

미국영화 ‘킬빌’의 여성에 대한 신화는 ‘공격적 섹슈얼리티’와 ‘방어적 순결’이다. [표 11]의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 내에 분절하면 한국 포스터는 남성 중심적 시선으로 영화를 해석하고 있으며, 미국 포스터는 여성적 시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두 포스터는 섹슈얼리티와 순결이라는 서로 반대 관계를 함의하고 있으며, 공격적 섹슈얼리티를 부정하면 공격적 섹슈얼리티에 대한 모순항인 비 공격적 섹슈얼리티를 얻을 수 있고, 방어적 순결을 부정하면 방어적 순결에 대한 모순항인 비 방어적 순결을 얻을 수 있다. 비 방어적 순결과 비 공격적 섹슈얼리티는 하위관계에 있다.



[표 11] ‘킬빌’의 기호학적 사각형

한국과 미국포스터의 기호는 남성 중심적 시선과 여성 중심적 시선을 기반으로 서로 상반되는 시각적 표현과 기의를 함축하고 있어 [표 12]와 같은 이항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포스터는 서양여성에 대한 육체적, 공격적 기표를 통해 우호적인 섹슈얼리티를 암시하고 있으며, 미국포스터는 동양적 폐쇄주의와 방어적 기표를 통해 내러티브의 자기 지향적이며 적대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하고 있다.

한국 - 미국	
섹슈얼리티	- 순결
남성 중심적 시선	- 여성 중심적 시선
육체적	- 정신적
공격적	- 방어적
간접적	- 직접적
암시적	- 명시적
개방적	- 폐쇄적
우호적	- 적대적
서양적	- 동양적
수동적	- 능동적
타자지향적	- 자기지향적

[표 12] '킬빌'의 한국과 미국 이항대립 쌍

4. 결론

본 논문은 1990년대 후반 페미니즘의 종결, 다른 의미로 페미니즘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포스트페미니즘 시대에 여성의 이미지가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되고 함의되고 있는지를 한국과 미국이라는 나라별로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상영한 한국 영화와 미국 영화의 포스터 4점을 선정하고 롤랑바르트의 기호학으로 분석한 후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에 적용하여 심층의미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미국은 동일한 내러티브를 가진 영화라 할지라도 소속된 사회의 문화관점에 따라 시각적으로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 두 나라는 기호학적으로 대립구조, 반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1990년대 후반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참여로 여성의 지위는 상승하였으나 한국 영화포스터에서는 아직도 가부장제의 고정관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특히 미국은 인간성(humanity)표현에 중점을 둔 반면 한국은 여성성(Female sex)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어 두 나라 간에 확연한 대립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한국과 미국의 시각적 표현과 기의의 차이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영화포스터는 사회나 집단속에 여성의 의미를 기의하고 있다. 한국 포스터에서 여성은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체제가 잔존한 형태로, 모성이 강조된 성녀로서 전통적인 한국의 여성상을 신화되거나 서양 여성에 대해서는 섹슈얼리티의 대상으로 기의되고 있어 여전히 사회적으로 타자화 된 불확실한 여성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인물을 둘러싼 배경과 오브제의 표현에서도 한국 포스터는 주인공을 둘러싼 주변상황, 다양한 사물을 통해 여성과 사회와의 관계를 설명적으로 기의하고 있다. 이는 여성이 독립된 자아가 아닌 관계 속의 존재한다는 강박관념

을 반영한다. 특히 포스터속의 한국 여성은 청순하고 단아한 이미지를 강조한 반면 미국여성은 공격적인 섹슈얼리티를 지닌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어 남성 중심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미국 영화포스터는 내러티브 속에 여성의 의미를 기의하고 있다. 인물표현에서 여성은 영화의 내러티브 속 역할에 충실하게 기표되었으며 특히 주인공의 개인적 심리상태를 중심으로 기의하고 있다. 그래서 양성적인 모습의 여전사이거나 웨딩드레스를 입어도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 여성이건 남성이건 상황 앞에서 평등하고자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클로즈업이나 직설적 표현을 통해 오브젝트를 최소화하여 객체와의 관계를 떠나 개인의 독립적 심리표현에 몰입하게 하고 있다. 배경 또한 무배경이거나 아주 단순한 배경으로 사회 어떤 것들과도 관계하지 않고자 하는 개인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표 13]은 한국과 미국 영화포스터 속에 표현된 여성상의 기의를 비교한 표이다.

분류	한국 포스터의 기의	미국 포스터의 기의
관점	사회, 가족주의	개인주의
시선	남성 중심적	여성 중심적
문화	가부장제 중심	본성론 중심
인물	모성, 가족, 어머니	전사, 양성, 개인
	섹슈얼리티, 육체	순결, 분노, 의지
배경	설명적 배경	단순한 배경
	사회적 상황	개인의 상황
오브제	다양한 오브제	최소한의 오브제
	관계 속 여성	독립적 여성
칼라	비현실적	현실적
텍스트	감성적	이성적

[표 13] 한국과 미국 포스터의 기의 비교

본 연구는 영화포스터의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한국과 미국 사회속의 여성상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포스트페미니즘시대에 제작되고 보편적인 여성의 역할이 아닌 여성주연의 영화 중, 한국과 미국의 관점 비교를 위하여 각 나라에서 제작되고 동시에 상영된 영화를 표본으로 선정하다보니 사례의 수가 적어서 논문의 결과가 대표성을 반영하기에 무리가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영화의 사례를 통하여 대표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비교된 연구는 동양

과 서양을 대표하는 이분법이 될 수 없다. 때문에 동일한 영화를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의 어떻게 기호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보다 세분화된 문화권 속 여성상의 차이를 알아봐야 한다.

셋째, 1990년대 이후의 여성상을 위주로 분석하였으나 2010년대에 다시 변화된 여성상에 대하여 분석하여 현 시대의 여성상을 재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상 뿐 아니라 남성상에 대한 문화권별로 비교분석이 추가로 이어진다면, 젠더에 대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복 (1996). 『사상사 개설』.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 김영도 (2008). 「융합콘텐츠의 의미생성 구조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박사논문.
- 박영원 (2003). 『광고디자인기호학』. 경기 : 범우사.
- 박인철 (2003). 『파리학과와 기호학』. 서울 : 민음사.
- 백승국 (2004). 『문화기호학과 문화콘텐츠』. 서울 : 다할미디어.
- 오현미 (2012), 「진화론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과 수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수 (2004). 포스트페미니즘에서 여성의 정체성과 차이. 『아시아 여성연구』, 43(2).
- 이철영, 백종웅 (2007). 한국과 미국영화포스터의 비주얼 표현과 시각적 구성에 관한 내용분석. 『기초조형학회』, 8(4).
- 이현정 (2004). 「위기적 남성성 재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 Ann Brook (1997). 『포스트페미니즘과 문화이론』. 김명혜 역. 서울 : 한나래.
- Josephine Donovan (1999). 『페미니즘 이론』. 김익구 이월영 역. 서울 : 문예출판사.
- Alter, E. S. (1985). The New Feminist Criticism: Pantheon. New York.
- Fiske, J. H. (1982). Understing News.
- Terence, H. (1988). 『구조주의와 기호학』. 오원교 역. 서울 : 신아사.
- Jean, B. (2001). 『Simulacres et Simulation』. 하태환 역. 서울 : 민음사.
- Rey-Debove, J. (1979). 『Lexique semiotique』 P.U.F.
- Sophia, P. (2001). 『포스트페미니즘』. 윤길순 역. 경기 : 김영사.
- Simone de B. (1993). 『제 2의 성』. 조홍식 역. 서울 : 을유문화사.
- <http://www.koreafilm.or.kr>